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기 성경: 레위기 4장 27-31절

Tag:

27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4:27-31)

요즘 나는 레위기를 읽고 있었고, 각 제사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았다.

-우리는 흔히 제사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율법을 지켜야 했는지, 한마디로 율법정신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정신까지 망각하면 곤란하다. 율법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율법의 세밀한 부분을 연구할 경우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율법 자체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렇

게 행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그 마음속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의 깊은 의도를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구약성경에 담겨진 율법들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제사법에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예법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유익하다.

제사의 종류;목적에 따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방법에 따라 화제, 거제, 요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암수), 고운가루, 떡, 과자.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방법이 달라진다.

중요도에 따라 속죄제와 번제가 중요하고, 제주로는 제사장, 온 회중(장로가 대표), 족장, 평민이 순서다.

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는 수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가루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번제(모든 고기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는 제주 자신의 헌신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제물-소, 양, 염소에 안수함으로 자신을 대신케 함.) 오늘날 번제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제사다.

자기 자신이 직접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다만,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므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번제만큼은 제주 스스로가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기를 발라내고, 내장을 씻어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번제단에 불사른다.(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아래 쏟음)

번제만큼은 반드시 숫컷을 드려야 하는데 이는 자기 스스로임을 상징. (가난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대체, 소제만으로는 번제 불가)

속죄제: 오늘날의 회개기도. 그릇범죄나 부지중의 범죄나 정결예식에 사용됨.(생각이나 정서적인 용도가 강함)

제사장, 온 회중을 위함:무흠 수송아지 (제사장과 장로가 안수)

죽장:무흠 숫염소 *제사장과 지도자가 최악의 책임이 가장 큼.

평민:무흠 암염소, 또는 무흠 어린양 암컷

가난한 자:산비둘기2, 집비둘기새끼2

아주 가난한 자:고운가루 1/10에바, 유일하게 소제로도 속죄가 가능. 회개 기도 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 유일하게 속죄제 가운데 제사장의 뭍이 남는 제물이 고운가루 1/10에바임.

(속죄를 위한 제물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

-속죄제의 특징은 제사장이 각을 뜨고 짐승을 죽임.

-그 피를 성소 휘장에 가져다 손가락에 묻혀 7회 뿌림.

-피를 향단 뿔에 바름, 나머지 번제단 아래 쏟음. (죽장, 평민은 번제단 뿔에 바름, 비둘기는 제단 곁에 뿌림)

-번제 부위:내장의 기름, 간 꺼풀에 붙은 콩팥과 기름, 양의 미골 기름진 꼬리

-나머지 전체는 진 밖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사름.

속건제:손해배상, 성물 회손에 대한 배상

-100% 배상 20% 벌금

-제사장이 금액을 정함

- 제사법은 속죄제와 동일하나 고기는 제사장의 것.
- 성물은 제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는 피해 당사자에게

*속죄가 되지 못하는 죄; 짐짓 죄, 고범 죄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는 속죄가 되지 않음.

-짐짓 살인죄, 짐짓 간음죄-불륜(모르고 지은 죄는 제외-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효과와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음.),

-하나님을 모독하며 훼방하는 죄, 성령희방죄

-동성애를 비롯한 망측한 죄(근친상간)

화목제;감사제, 서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속죄제와 동일하나 고기는 잔치로 사용

-흔든 가슴이든지 든뿔다리는 제사장의 것

화목제는 당일 모두 먹어야 하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음날까지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이나 불륜 등은 속죄가 불가능하다. (자기 안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

*만약 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짐짓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리라.

*속건죄는 당사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함.

*그러나 부지중이 아닌 손해 배상의 경우(일부러 범죄의 목적으로 흠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당 다섯 마리, 양 한 마리당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짐짓죄-고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출22:1, 삼하 12:6)

*제사장이나 관리의 경우 더 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 (관리나 정치인, 사자 직업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찬양예배>

제목 : 성령의 계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8-16절

Tag: